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⑮ 본래 부처라는데 왜 화두가 필요한가?



▶한줄 요약
일체 망상을 하나의 화두로 비우고 그 화두마저 타파하면 부처의 지혜를 단박에 완성할 수 있다.

화두, 망상 타파하는 밝은 지혜



고양 흥국사 선명상 템플스테이에서 화두 명상하는 고양시청 직원들.

참선 명상은 고달픈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준다. 참선 명상에는 그런 치유의 힘이 있다. 이것은 오직 체험해야만 알 수 있다. 세계적인 명상붐으로 다양한 명상법 중에 가장 빠르고 깊은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화두 참선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참선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관련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는 조계종 스님들을 중심으로 화두 참선법을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가 법사나 일부 스님들이 화두 없이 참선을 말하는 것이다.

같은 불교와 참선을 말하면서도 어떤 분은 화두 참선이 가장 빠른 깨달음의 길이라 강조하고, 또 어떤 분은 화두 참선도 필요 없는 참선을 말할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선(禪)에서는 어째서 본래 부처라 하는가?

선종의 종전(宗典)인 〈육조단경〉에서 혜능대사는 이렇게 말한다.

"선지식아! 보리반야의 지혜는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육조 혜능대사는 우리에게 부처의 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는데, 단지 미혹하여 깨닫지 못한다고 말한다. 부처님도 일체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였듯이 선종에서도 우리에게 부처의 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다고 한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부처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회나 성당을 다녀도 본래 부처인 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나오지 않는가? 어째서 본래 부처가 교회와 성당에 나가서 하나님, 절대 신을 찾고 믿음을 구하는가?

우리가 본래 부처인줄 모르고 중생이라 착각에 빠져 분별망상 속에 살기 때문이다. '나' 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 는 착각에 빠져 삶과 죽음의 분별 망념을 일으키고 살아간다. 분별망상이 오락가락하니 본래 마음의 지혜가 가로막혀 나지 못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밝은 해가 먹구름에 가로막히면 빛이 나오지 못하다가 걷히면 저절로 드러나는 이치와 같다.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본래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 망상을 일으키니 본래 마음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부처이니 깨달음도 수행도 필요 없는가?

불자들 중에 참선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본래 부처인데 왜 수행이 필요하느냐?' 이다. 실제 동아시아 선종의 한 문파인 일본 조동종(曹洞宗) 선사들은 우리가 본래 부처이니 1분 앉으면 1분 부처, 5분 앉으면 5분 부처가 된다고 가르친다. 그냥 묵묵히 앉아서 자기 마음에 번뇌망상만 비우면 그대로 부처라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부처가 된다하니 대중의 호응이 좋다. 지금도 일본불교계에는 선종 문파 중 간화선맥의 임제종 보다 조동종 선풍이 더 강하다고 한다. 그만큼 일본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본래 부처이니 깨달음도 수행도 필요 없이 그냥 쉬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견해는 우리나라에서 참선을 말하는 분들에게도 보인다. 유튜브를 보면 참선 수행자라면서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의 법문을 쉽게 볼 수 있다. 참선의 대중화라는 면에서 이런 활동은 찬사 받을 일이다. 그 어렵다는 참선을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하고 발심의 인연을 짓게 하니 좋은 일이다.

본래 부처이나 분별망상이 완전히 없어야 부처다

그러나, 본래 부처이니 깨달음도, 수행도 할 것이 없다는 견해는 부처님이 무아(無我)를 말씀하셨으니 윤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는 말과 같이 혼돈을 가중시키는 말이다. 과연 본래부처이니 수행도 깨달음도 필요 없는 것일까?

본래 부처이니 깨달음도 필요 없다는 말이 불교의 정견(正見)이 되려면, 우리가 본래 부처이니 초조 불안하고 화내고 욕망대로 도둑질하고 살상을 범해도 그대로 부처라는 말이 된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 '여래출현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치고 보니 일체 중생이 여래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분별망상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혼잣말로 하신 말이라고 경전에는 기록되어 전한다. 이로 보아 부처님도 깨치기 전에는 스스로 중생이란 분별망상에 가로막혀서 자기 안에 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다가 깨치고 보니 본래 지혜와 덕이 갖춰져 있더라 하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와 같은 지혜와 능력이 갖춰져 있지만, 분별망상에 가로막혀 그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에 일체 분별 망상 없애고
본래 지혜 밝히는 참선법 화두

내 안에 일체 번뇌 망상 비우고
부처로 돌아가는 명료한 수행법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망상을 완전히 없애는 깨달음에 대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 '팔만대장경'은 모두 번뇌망상을 비우고 깨치라고 하신 말씀이다.

선종의 육조 혜능대사도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 부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본래 스스로 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깨치지 못하고 있다고 혜능대사는 이렇게 말한다.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성품을 보라. 깨달음을 만나면 지혜를 이루리라."

우리에게 반야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지만 분별심에 가려져 알지 못하니 바른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자기 마음을 깨달아 지혜를 밝히라는 말씀이다.

부처님과 혜능대사의 법문과 같이 우리가 본래 부처라 할지라도 스스로 중생이라 착각에 빠져 분별망상에 가로막혀 자기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생사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려면 내 안의 분별망상을 완전히 비우는 수행과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수행 정진을 통하여 분별망상을 완전히 비우면 깨달아 내 안의 지혜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성철스님이 재가 불자로 처음 화두 참선을 시작한 지리산 대원사 탑전.

화두란 나쁜 지식과 망상을 꺾는 무기

화두 참선을 한다고 하면 가끔 이런 말을 접한다. '본래 부처인데 왜 그 어려운 화두 참선을 합니까? 그냥 여여하게 본래 부처로 살아요.'

화두 참선 없이 깨달음도 없이 본래 부처로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하루 한 끼라도 먹어야 산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나 '내가 있다' '내가 중생' 이라는 착각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한다. 본래 부처이니 중생심 그대로 부처다, 지혜다 아무리 주장한들 생사 윤회의 괴로움을 피할 길이 없다.

생사의 분별심, 중생이라는 착각 망상을 완전히 깨어나야 부처라는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 생사의 분별망상을 완전히 비우려면 비울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분별망상을 없애는데 화두는 특별한 효능이 있다. 간화선을 창안한 대혜 선사는 '무(無)' 자 화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 한 글자는 허다한 나쁜 지식과 생각을 꺾는 무기입니다."

화두는 우리 마음에서 일체의 분별 망상을 없애고 바로 본래 지혜를 밝히는 탁월한 참선법이다. 우리가 이대로 본래 부처이나 자기 안에 번뇌의 불을 완전히 꺼야 부처다. 아무리 본래 부처라 하더라도 자기 안에 중생이라는 착각 속에서 나와 너, 선과 악, 옳고 그름 등 분별 망상이 그대로 있다면 부처의 지혜와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 화두는 내 안에 허다한 나쁜 지식과 망상을 꺾는 가장 빛나는 지혜다. 화두는 내 안에 일체의 번뇌 망상을 비우고 본래 부처의 지혜를 밝히는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다. 화두는 중생이란 착각에서 깨어나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가장 간단명료한 수행법이다.

일체 망상을 하나의 화두로 비우고 그 화두마저 타파하면 부처의 지혜를 단박에 완성하기 때문이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법주 대륜 스님의
'불교 전통제례의식 교본' 출시

49재 및 천도재 의식 교육자료



고객상담실 010-9049-0016 교재문의 010-6488-3761

한국불교전통범패 학인모집

위 본 종단 종무원에서는 강주 민지효 스님을 모시고 전통범패의식을 기초의식부터 각종 의식과 사물 다루는 법을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종무원장님으로부터 수료증(이수증)을 수여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인에게는 혹익범패단에 입단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개 강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 법당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47 청하빌딩 4층
■ 접수처 : 부산 종무원 (051-5580-5077)
■ 강 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내 용
1. 조석예불 : 아침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등
2. 사시예불 : 거불성, 독경, 동음 등
3.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헌좌게, 도량게 등
4. 천도의식, 수륙제, 점안의식, 화청, 공덕게
5. 천수바라, 사다라리바라, 요잡, 관욕바라
6. 도량게, 다게(나비춤), 법고춤

태고종 부산종무원 원장 마나

국가무형문화제 50호 영산재(세계유네스코 등재)